

비뇨기과 전문의 정치영의
솔직, 대담한 性

64세의 이병갑(가명)씨가 아들내외와 함께 급하게 내원했다. 어제 친구들과 늦게까지 과음을 하고 집에 돌아왔던 이씨는 벌써 10시간도 넘게 소변을 보지 못했다는 핑계로 발을 뚫고 꿇었다. 아랫배는 상당히 부풀어 올라 있었고, 매우 당황한 표정의 이씨는 안색마저 창백했다. 재빨리 수술실로 옮겨 요도에 도뇨관을 넣은 후 소변을 인위적으로 배뇨시켰고, 그 결과 큰 생수병만큼의 양인 900cc 정도의 엄청난 양의 소변이 나왔다. 그제서야 이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립선 커지면서 요도 압박

남성은 여성과 달리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갈수록 그 전립선의 크기가

힘없는 소변줄기가 슬퍼진다면 ...

자꾸 커질 수 있는데, 이를 '전립선비대증'이라 한다. 해부학적으로 전립선은 요도를 둘러싸고 있어 그것이 커지게 되면 요도는 자연히 압박된다. 그 결과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고 배뇨 후에도 시원치 않으며, 소변이 빨리 나오지 않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그로인해 방광은 소변을 배출해내는 수축력이 점차 떨어지게 된다.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씨와 같이 소변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황당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전립선은 이미 30대 초반부터 미세하게 커지기 시작하여 50대 이후가 되면 모든 남성인의 약 60%이상에서 커진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중 약 40%에서 증상을 호소한다. 커진 전립선이 오랫동안 요도를 압박하게 되면 방광은 오줌을 내보내기 위해 자

꾸 과도한 힘을 쓰게 되어 그로 인해 방광은 쓸데없이 두꺼워진다. 결국 두꺼워진 방광은 필요 이상의 불안정한 수축상태를 보이게 되고, 그 결과 소변이 자주 나오고 밤에도 자주 깨서 소변을 보는 등의 증상까지 동반된다. 한편으로는 배출이 원활치 않은 소변이 방광에 자주 고임으로 인해 신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사례와 같이 소변이 꼭 차 있는데도 갑자기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것을 가리켜 '급성 요폐'라 한다. 이는 전립선비대증을 가진 환자가 과음하거나, 갑자기 추위에 노출될 때, 소변을 오래 참을 때, 감기약을 먹을 때 간혹 나타날 수 있는 응급상황이다. 아무리 소변을 보려 해도 전혀 배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빨리 응급실이나 가까운 비뇨기과를 찾아 막혀있는

소변을 배출시켜 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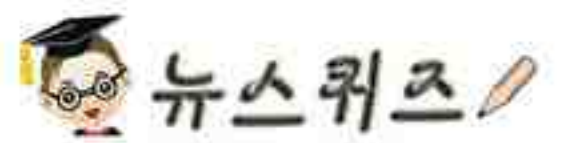
전립선비대증은 50세가 넘어가면 누구나 올 수 있는 매우 흔한 노년성 질환이므로 이 시기가 되면 반드시 전립선검사를 해 보기를 권한다. 그 자체가 생명에 큰 지장을 미치지 않는 것보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방치하면 방광과 신장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남자라면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전립선비대증' 노년성 질환

전립선비대증의 경우 대개 약물치료를 먼저 시작하며 약물에 반응이 없거나 증상이 심할 때, 전립선 크기가 큰 경우 등에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수술은 내시경을 통해 시행되어 비교적 간단하며, 특히나 최근엔 레이저를 이용하여 출혈을 줄이며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등의 수술적 발전을 보이고 있다.

흐르는 세월을 어찌 할 순 없었지만 화장실에서 구두위로 힘없이 떨어지는 아슬한 오줌을 보고 독자들은 펜스레 슬퍼진 적은 없었는가?

<태미필 피부·비뇨기과 원장>



63. 광주제일고가 지난 3일 제 41회 대통령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적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 전국 대회 통산 20번째 우승의 금지탑을 세웠습니다.

지난 1923년 창단된 광주제일고 야구부는 80~90년대 들어 전국 대회에서만 11개의 우승기를 휩쓸며 한국 야구의 명문고로 자기매김했습니다.

광주제일고를 나와 국내 프로야구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광주제일고 출신이 아닌 야구 선수는 누구일까요?

- ① 박찬호 ② 김병현 ③ 최희섭 ④ 이종범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 냉정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함께 풀어봅시다 < 2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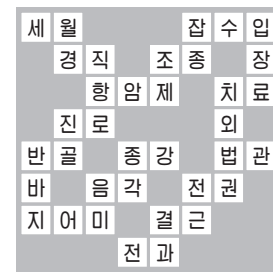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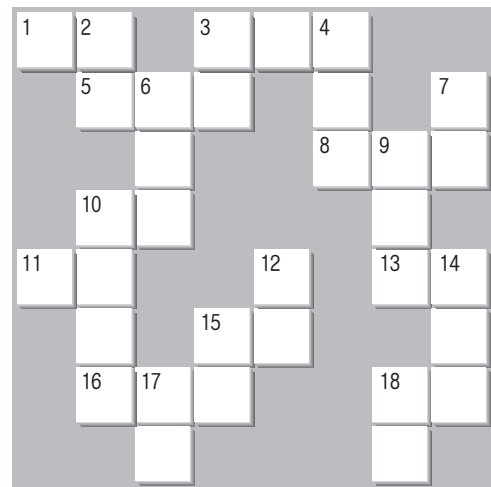
→ 가로풀이

1.근본이 되는 거점, 또는 어떤 일이나 의논, 의견을 내는데 그 근본이 됨, 또는 그런 까닭. 그것은 ~ 없는 낱말입니다. 무슨 ~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3.정상 상태보다 혈압이 낮은 증상. 대개 성인의 수축기 혈압이 90mmHg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이른다. 큰물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많은 물이 넘쳐서 일어난 혼란. 그 마을은 지대가 낮아서 지난 여름에 홍수로 큰 ~를 겪었다. 8.품사의 하나.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등을 나타내는 말의 부류이다. 10. 물이 얼어붙은 기구나 단체, 나라 등을 하나로 합침. 또는 그렇게 만들. 11.곡식의 이삭을 떨어뜨려 낱알을 거두는 일. 13.글씨를 쓴 지면, 또는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 ~으로 제출하다. 15.두 가지 사물이나

사람을 들어서 말할 때, 뒤에 든 사물이나 사람.→ 전자. 16.월요일을 기준으로 한 주의 둘째 날. 18. 일단 사물인 물품을 되돌려 보냄, 또는 그 물품, 그 회사나 ~으로 들어온 물건들은 대부분 폐기한다.

↓ 세로풀이

2.큰 물건, 또는 세력이나 학문 등이 뛰어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물. 그는 정계의 ~이 되었다. 3.싼 이자. 4.내리 놀리는 답답한 느낌. 삼리적 ~에 시달리다. 빨리 끝내야 한다는 ~ 때문에 일이 더 안된다. 6.고치기 어려운 병. 7.사실이나 일의 상태 또는 물질의 구성 성분 등을 조사해 놓고 그들과 닮고 못함을 판단하는 일. 선생님은 학급 아이들의 숙제 ~를 하셨다. 품질 ~. 9.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문서나 글. 재개발 문제로 주민들은 정부에 ~를 제



<함께 풀어봅시다 249회 정답>

아 있었다. 18.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서 대들거나 반대함. 사춘기의 ~.

▲지난주 정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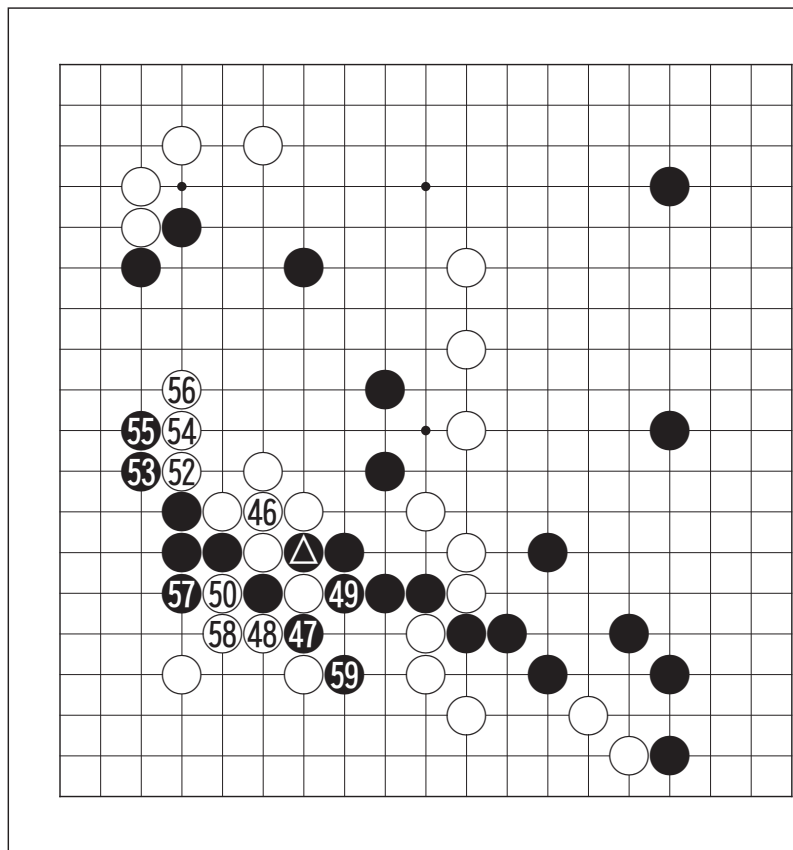
김우진·광주시 북구 운암동 최준혁·광주시 서구 풍암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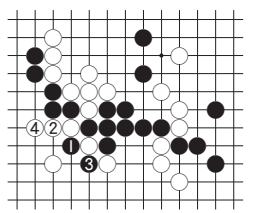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출했다. 10.물 이상의 제작자나 제작회사가 힘을 합쳐 만든 영화. 12.형질이나 강철로 피처럼 만든 자. 14.세금이나 관세가 면제된 상품. 15.뒷날을 이르는 말. ~을 도모하다. 놀러 가는 것은 ~로 미루고 우선 급한 불일부터 보기로 했다. 17.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 또는 뒷자리에 있는 사람. 식당에는 삼부 ~이 한자리에 다 모여 앉



포도송이의 공방 4보(46~59)

KTW 왕위전 16강 白 윤찬희 초단 黑 목진석 9단



<참고도>

제 온다. '초반무패'라는 말처럼 이 때는 백이 견딜 수 없는 패. 그런데 절제절명의 순간 윤찬희는 백 46으로 있는 독수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이 수는 대표적인 포도송이의 모습으로 프로라면 얼른 떠오르지 않는 유형의 표본같은 수다. 그러나 팻감이 없는 지금에는 의외로 강한 수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흑도 47로 잡을 수밖에 없고 이번에는 거꾸로 백이 48,50으로 몰아 북수라도 하듯이 상대를 포도송이로 만들고 있다. 백이 신나게 단수로 물기는 했으나 끊길데가 많아 어딘지 불안해 보인다. 그러나 흑도 57로 모는 정도여서 보기보다 쉽게 수습이 되었다. 만약 흑이 욕심을 부려 '참고도'의 1로 양단수하면 백 4로 내려서서 대책이 없다. 흑 59로 젓혀 이제부터가 어려운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F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김수진, 지지옥션배 2연승

김수진 2단이 지난 5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기 지지옥션배 여류대 시니어 연승 최강전 8국에서 김일환 9단을 92수 만에 백 불계로 꺾고 2연승을 올렸다.

김수진 2단은 흑반을 잡은 김일환 9단이 여유있는 상황에서 착수를 범한 틈을 타 흑매마를 대량 포화, 행운의 승리를 낚았다.

김수진 2단의 승리로 여류팀은 시니어팀에 6-2로 크게 앞섰다. 김 2단은 오는 12일 장수영 9단과 격돌한다.

이 대회는 제한시간 10분 30초 초읽기 3회로 진행되며 우승상금은 5천5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7일(음 3월 21일 辛卯)

- 36년생 좋은 일보다는 흉사가 중복된다. 48년생 새끼이 나오려면 고통은 어쩔 수 없듯이 감수하라. 60년생 남녀사이에는 숨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 72년생 직장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84년생 부부사이에서 미묘한 관계가 발생하니 많은 조심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2, 30
37년생 식물이 비료를 받는 듯 모든 일이 순조롭다. 49년생 겨울날 언 땅을 만나야 형상이나 개운치 않다. 61년생 현재 진척으로부터 말썽이 빚겨져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다. 73년생 내 것 잃고 누릴 수 있는 꼴이다. 85년생 부부사이에서 소사 병전을 조심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1, 34
38년생 정중동하나 결과가 불미할까 두렵다. 50년생 문서로 인한 기만과 사기를 조심하라. 62년생 친구 형태로 인한 고통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주의하라. 74년생 정거리 여행을 삼가하고 현 위치에서 만족하라. 행운의 숫자 : 09, 36
39년생 직장생활의 질체와 재물이 불만이 얼어붙은 형상이다. 51년생 안도의 숨은 풀리지만 마음이 불편하다. 63년생 큰 고생은 없지 만 큰 득도 없다. 75년생 이상천의 문제가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21, 25
40년생 땅은 얼어붙어 신체에 장애가 없을 수도 있다. 52년생 눈물 날 일이 생겼고 기쁨이 있으니 걱정은 하지마라. 64년생 고인이 가증된 형상이다. 76년생 대고는 없으나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5, 26
41년생 겉은 조용한 듯 하지만 속 고통은 있다. 53년생 천지간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해가 없다. 65년생 마지막 불만이 나타나니 주의를 해야 한다. 77년생 길사가 계속 될 수도 있으나 지치면 침체가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17, 29
42년생 뒤처리를 할 사람이 나타나 마무리를 한다. 54년생 태인의 속임수에 동정할까 두렵다. 66년생 주변의 꼬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하리라. 78년생 새로운 씩이 한 자리를 만나는 형상이니 조심을 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03, 45
43년생 주변의 시끄러움이 나에게 물러온다. 55년생 옛 것으로 인한 불편함이 신생되어 불편을 가중한다. 67년생 시비의 발생이 우려되고 구설수가 있다. 79년생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일이 중단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1, 35
44년생 대고는 없으나 주변 내고는 감수해야 할 것이다. 56년생 자녀에게 불리한 임장이 발생될 수도 있다. 68년생 순조로운 진행은 있으나 배인 간에 간섭이 있을 수도 있다. 80년생 큰 투자는 미루라. 행운의 숫자 : 04, 44
45년생 구사가 신사로 바뀌어서 괴로움을 주는 형상이다. 57년생 조상에 대한 것이 친척간의 불상사로 연결 될 수도 있다. 69년생 옛것으로 말썽 난다. 81년생 답답한 침체가 있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8, 37
46년생 전쟁이 발생할 형국이다. 58년생 가내 내분과 부부 언쟁이 발생하고 이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70년생 유래한 형상이고 길사로 연결 된다. 82년생 처음 좋은 전화위복으로 바뀌어서 길사로 다 가온다. 행운의 숫자 : 07, 40
47년생 문서에서 사기 당하는 수가 발생할 수 있다. 59년생 친구로 인해서 침체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71년생 아랫사람에게 보시는 마음대로 내 것을 내어주라. 83년생 고성이 발생하고 계획이 지연된다. 행운의 숫자 : 14, 38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더마플라스트 밴드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용타어!! DermaPlast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898>

I can't complain
좋습니다(순조롭습니다)

A: Hi, how are you?
B: Oh, I can't complain.
A: That's good.
B: How are you?

A: 안녕, 어떻게 지내?
B: 응, 아주 좋아.
A: 그거 좋는데.
B: 자네는 어때?

I can't complain : 맨 뒤에는 'with that'가 생략되어 있다
= Not too bad.
= No problems.
[주의] No problem.(=Sure : 문제없어요)
How's your business?(잘 지내나?)
-(응답) 그러저럭 지낼 만해 : Just okay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898>

はっきり答(こた)えなさい
확실히 말하세요

A: 先月(せんげつ)は賣(う)り上(あ)げ實積(じっせき)がかなり落(お)ちこんだけどどうしてなんだ.
B: それが、あのう-
A: はっきり答(こた)えなさい.
B: 實(じつ)はライバル會社(がいしゃ)に全部(ぜんぶ)取(と)られてしまっ.

A: 지난 달 매출 실적은 꽤 떨어졌는데, 어떻게 된 거야?
B: 그것이, 저...
A: 확실히 말하세요.
B: 실은 라이벌 회사에 전부 빼앗겨 버려서.

賣(う)り上(あ)げ : 매상
實積(じっせき) : 실적
落(お)ちこむ : 떨어지다(심하게)
取(と)られる : 빼기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 ☎ 228-2545

니하오 쯡구워 <89>

好心人
착한 사람

A: 我今天碰到好心人了.
Wó jīntiān péng dào hǎoxīnrén le.
워 쨌티엔 펑 따오 하오쨌린런 러.
B: 怎么回事?
Zěnmé huìshì?
전 머 후웨이 이 쓰?
A: 我的钱包丢了, 信用卡和护照都在里面.
Wódě qiānbāo diū le. xìnyòngkǎ hé hùzhào dōu zài lǐmian.
워 더 치엔 뵤오 띠우어 러, 신훈용카 혼어 후짜오 따우 짜이 리미엔.
B: 这个好心人捡了, 然后送给你了.
Zhè ge hǎoxīnrén jiǎn le, ránhòu sòng gěi nǐ le.
짜 거 하오쨌린런 지엔런, 란후송 쑹 게이 니 러.

A: 나 오늘 착한 사람을 만났어.
B: 어떻게 된 일이야?
A: 내 신용카드와 여권이 모두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 버렸어.
B: 이 착한 사람이 주어서, 너에게 전해 줬구나.

碰到 [pèng dào] (우연히)만나다
好心人 [hǎoxīnrén] 좋은 사람
丢 [diū] 잃다
捡 [jiǎn] 줌다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515>

刎頸之交 (문경지교)
목자를 문, 목경, 어조사 지, 사결 교

문경지교(刎頸之交)는 목을 자르는 사귀이라는 뜻으로 '생사를 같이할 만큼 절친한 사귀, 또는 그런 친구'를 이르는 말이다. 전국시대 조(趙)나라의 식객으로 있던 인상여(蔣如)는 진(秦)나라 소왕왕에게 빼앗길 뻔했던 명목 화씨벽(和氏璧)을 되 가져 온 공로로 상대부(上大夫)에 오르고, 3년 뒤 조나라 혜문왕을 목보이려는 진나라 소왕왕을 저지하고 오히려 그에게 망신을 준 공로(功勞)로 상경(上卿)에 올랐다. 그러나 조나라의 명신 염파(廉頗)는 인상여의 출세를 시기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 나보다 인간 놀림 그 높은 자리에 올랐다"며 만나면 망신을 주겠다고 벌했다. 그 후 염파를 피해 다니는 인상여에게 부하 불만을 표하며, 인상여는 "다만 그와 내가 있기 때문에 진나라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피해 다니며 싸우지 않는 건 나라의 안위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염파는 인상여를 찾아가 사죄하고, "오늘부터 대감과 생사를 같이하는 결의형제를 맺어 비록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코 변치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두 사람이 맺은 교우관계를 일컬어 문경지교(刎頸之交)라고 했다. (史記·廉頗蔣相如列傳)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